

ABS 수출가격 차이 무려 275달러

제일모직, 12월 톤당 1204달러에 수출 ... 금호는 톤당 929달러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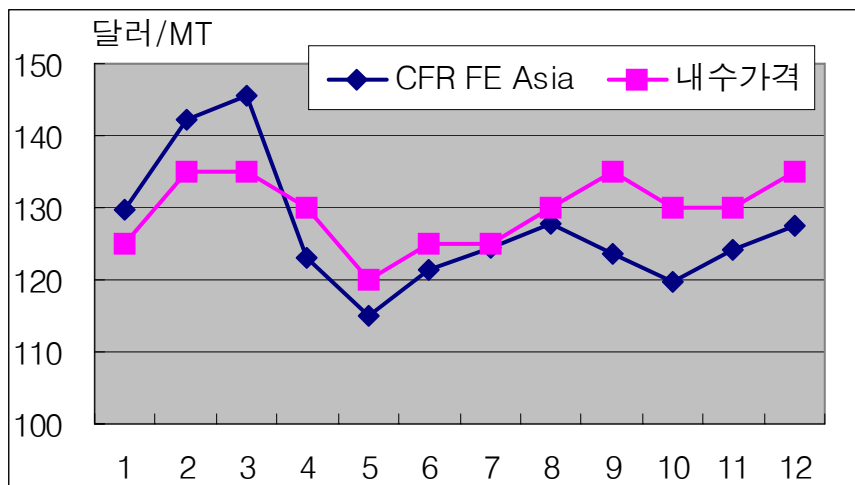
12월 톤당 135만원에 거래됐던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가격이 2004년 1월 톤당 5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 생산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SM과 환율의 추가 상승으로 1월 ABS 가격을 11월과 같은 톤당 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BS는 그레이트별로 12월 톤당 120만-1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12월 환율은 26일까지 매매기준율 달러당 1191.57원으로 6.7원 올라 소폭 상승한 반면, ABS의 주 원재료인 SM(Styrene Monomer)은 11월28일 FOB Korea 톤당 730-740달러에서 12월19일 795-805달러로 톤당 60달러 인상됐다.

ABS 생산기업들은 SM 국제가격 상승으로 내수 구매가격 상승이 확실시돼 2004년 1월에도 톤당 5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ABS 가격추이(2003)



12월 ABS 수출은 1-24일 기준 제일모직 1만2288톤, LG화학 9782톤, 한국BASF 8596톤, 금호석유화학 3460톤이었으며, 수출단가는 제일모직, LG화학, 한국BASF, 금호석유화학이 톤당 각각 1204달러, 1049달러, 951달러, 929달러로 평균 1056달러를 기록했다.

ABS 생산기업들의 수출단가 차이가 톤당 275달러로 벌어진 데 대해 ABS 생산기업 관계자는 “ABS가 범용으로 분류되는 그레이트가 많아 가격차가 심하며, 2002년부터 같은 그레이트도 용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BS는 Acrylonitrile 20%, Butadiene 15%, SM 65%를 투입해 생산하며,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난연 그레이트는 난연제가 15% 첨가돼 컴퓨터 모니터 등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2003년 난연 및 압출 그레이트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한데 대해 생산기업 관계자는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타 그레이트의 수요가 줄어들어 난연·압출 그레이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며, 전기 및 전자용 수요는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민 조사연구원>